FX Market Daily

2025-08-26

전일동향

전일대비 8.50원 하락한 1,384.70원에 마감

25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8.50원 하락한 1,384.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8.20원 하락한 1,385.00원에 개장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따른 달러 약세에 환율은 1,380원대 중후반을 횡보했다. 다만, 달러 실수요 매수 및 한미 정상회담 경계감 등에 환율의 하단은 제한되며, 1,384.7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4.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0.84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85.00	1390.50	1384.20	1384.70	1386.30
엔화	947.78	948.97	935.93	936.13	-
유로화	1632.09	1633.94	1606.65	1608.37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4	-5.33	-12.88	-26.2
결제환율(수입)	-0.31	-4.48	-10.98	-22.7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파월 발언 재조명에...1,390원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45)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84.70) 대비 5.75원 상승한 1,388.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연준 금리인하 불확실성 및 프랑스 정국 혼란 우려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주 예정된 PCE 발표를 앞두고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경계 발언은 재조명됐다.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비둘기파적 평가가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물가 및 고용 데이터와 관련된 우려감이 확대됐다. 이에 연준 금리인하 불확실성에 전일 낙폭을 일부 되돌리며, 달러인덱스는 0.69 상승한 98.44를 기록했다. 한편 유로화는 프랑스 정국 혼란으로 약세를 보였다. 프랑스 바이루 총리는 긴축재정 동력 확보를 위해 의회에 신임 투표 요청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고, 의회 내 야당은 정부 불신임을 예고하며 정국 혼란을 심화했다. 금일 환율은 잭슨홀 영향의 일부 되돌림 및 유로화 약세 등에 따른 달러 강세를 반영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입업체 결제 등 달러 실수요 매수는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업체 고점매도 및 외환당국의 속도조절 경계 등에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86.20 ~ 1394.60 원

체크포인트

-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224.47 억원
-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75원↑
- ■ 美 다우지수 : 45282.47, -349.27p(-0.77%)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9.66 억달러
-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320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